

中華民國 經濟發展의 回顧와 展望

吳 中 立

I. 前言

II. 經濟發展의 回顧

III. 經濟發展의 評價

IV. 經濟發展의 보이지 않는 意義

V. 經濟發展의 展望

VI. 結 論

I. 前 言

경제발전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간에 서로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사의 진행과정이다.¹⁾ UN에서 발간된 출판물은 경제발전의 영역에 대해 비교적 모두가 수용가능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²⁾ 즉, 경제발전은 인류의 물질욕구뿐만 아니라 개인생활과 사회조건의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발전은 의의상 경제성장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된다. 발전은 成長과 變動을 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구조의 부단한 발전변동과정인 것이 바로 경제발전인 것이다. 2차대전이래, 경제발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와 경제생활의 목표가 되었으며, 貧富, 大小와 개발의 정도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더욱 進一步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표가 되었다.

중화민국 대만地區의 경제발전과 경제건설의 성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

1) Paul Alpert, "Economic Development: Objectives and Methods", (The Free Press of Glencoe, 3rd Printing, April, 1967), pp. 1~3.

2)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Proposals for Action*, Report by the Secretary General(N.Y. May 1962), p. 4.

인된 기적이며 사실일 뿐 아니라, 중화후손이 이룩한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 중화민국의 경험 대만模式 및 대만성공의 先例等等은 이미 일찌기 경제발전 연구학자들이 중북서술하는 範例가 되었으며 유관문헌 또한 개발도상국 必讀의 기본서가 되었다. S. Kuznets, 邢慕寰, 費景漢, 郭婉容, G. Ranis, 吳元黎등은 귀에익은 전문가들중 가장 저명한 몇몇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II. 經濟發展의 回顧

중화민국 대만地區 경제발전의 역사과정과 경제건설의 궤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대만광복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대만광복초기는 戰時의 막대한 피해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참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新舊交替의 분위기는 바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었다. 일본의 대만점거 50년간 동안 전력, 기계, 교통, 방직, 경금속등 약간의 기본공업을 건립하였으나³⁾ 「공업일본, 농업대만」의 근본정책과 전쟁시에 입은 피해는 이러한 약간의 공업기초로 하여금 광복초기에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에는 여전히 상당한 곤란이 있었다. 尹仲容, 葉萬安등의 연구는 전력, 교통 및 기타산업이 당시에 입은 막대한 피해상황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공업생산의 감소(1946年の 공업생산이 피해전 최고생산량의 3분의 1)사실을 증명하였다.⁴⁾ 일본점거부터 광복초기까지의 대만의 생산지수를 보면(表 1)上述한 내용이 증명된다. 1946年 각항의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총생산지수 역시 광복시의 24.04(1937年을 100으로 한다)에서 41.18로 상승하여, 70%를 초과하는 성장율을 기록하였다.⁵⁾ 그러나 첫째, 교통수단의 파괴로 인해 각종 복구기재는 모두 인력에 의해 운반되었으며, 둘째, 사회

3) 劉阿榮 “臺灣工業發展의 過去와 未來” 「臺灣經濟發展의 經驗과 模式, 臺灣光復四十年 專輯, 經濟建設篇, 臺灣省政府新聞處, 篇印, (1985. 10. 25) pp. 167~190.

4) 註 3과 같음.

5) 侯家駒, “臺灣經濟發展策略暨對中共經濟改革因應之道”, 工商時報주최 中共경제개혁과 대만에 대한 影響 研究討論會 發表論文, (1985. 8. 19~20)

〈表 一〉 日本점거시대에서 대만광복초기까지의 대만 생산지수

年 度	指 數 分 類				生産指數
	農 業 類	漁 業 類	工 業 類	鑛 業 類	
1937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38年	101.83	92.89	104.78	105.09	107.05
1939年	108.03	105.81	90.14	135.27	109.81
1940年	96.86	193.70	75.01	139.53	126.28
1941年	86.77	98.89	60.69	133.73	95.07
1942年	97.31	68.42	48.11	112.66	81.63
1943年	80.28	47.03	72.20	95.13	73.66
1944年	61.62	21.96	15.70	91.41	47.67
1945年	34.23	14.88	2.70	44.33	24.04
1946年	36.42	53.15	20.12	55.02	41.18

참고자료: 夏露成 論發行, 物價와 生産, 財政經濟月刊 第一卷第八期(1951年 7 月), 表 1.

질서는 안정되지 못하였고 물질은 극도의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省內의 각종 생산사업과 공장은 광망상태에 있어서 복구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구매가 어려워 복구공정에 필수적인 긴급재로 및 공구의 수집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⁶⁾ 세채, 대륙의 정세는 여전히 동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 방면에서 各省정부에 줄 수 있는 실제적지원은 기술과 관리인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여 복구사업의 진행은 완만하였다. 1949년에 이르러 중추가 대만으로 옮겨와서 대륙에서 이전해온 인력, 설비와 자금으로서 비로소 대만의 경제건설에 전력투입을 시작하였다. 비록 인구의 급증은 많은 압력을 동반하였으나 정부의 경제건설사업은 오히려 전체국민의 협동과 노력하에 나날이 효과를 거두어 이전의 공업을 점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또한 순서에 따라 창설되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의 발전과 물가의 안정이 당시 제일의 급선무였던바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고 자금의 수요가 적고 성취효과가 비

6) 註 3과 같음.

교적 빠른 경공업이 극단적인 환경의 곤란상태하에서 천천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2차대전후 중화민국 대만地區의 경제발전을 대략 2개시기로 나눌 수 있다.⁷⁾ 첫번째 시기는 2차대전 종결 이후부터 1950年代까지로서 농업방면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출대체공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두번째 시기는 1950年代부터 현재까지로서 대외지향의 공업화 정책이 그 중점이 되었다. 많은 국내외학자 역시 모두 이러한 대략의 구분법에 동의하고 있음으로써 산업관계, 무역형태, 혹은 발전단계의 是非관계증명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모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비교적 정리된 논증은 대만의 경제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인데,⁸⁾ 즉 농업, 경공업과 중공업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농업단계에 있어서는 「농업으로서 공업을 배양하는 것」 혹은 「수입대체」 혹은 「국내지향」등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경공업단계는 「공업으로써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수출대체」 또는 「대외지향」등이 모두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중공업단계에 이르러서는 「제 2 차 수출입대체」를 표방하였다. 시간적으로는 위의 3단계를 1950年代와 60년대, 그리고 70年代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다.

1949年에서 51年末까지는 모든 노력이 경제안정의 달성에 집중되었다. 1949年 상반기와 51年の 물가상승율은 3년반의 기간동안 2,384배에 달하여⁹⁾ 년평균 물가상승율은 92%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물가의 안정이었던 것이다. 49年 6月 단행된 新대만貨로의 화폐개혁은 충분한 純貨幣으로써 新대만貨의 발행을 준비

7) C.K. Yen, "The Fundamentals and Conditions of Postwar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speech delivered at "Conference on Experiences and Less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The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R.O. C. Dec. 18~20, 1981.

8) 註 5와 같음.

9) 葉萬安, "臺灣工業發展政策的 研究及 實施", 臺灣工業發展會議論文 中央研究院 經濟研究所 主編, (1983. 3, 18~20) p. 728.

〈表 2〉 計劃目標和 實際成果的 比較

제 회 목 표	제 회 제 회	
---------	---	--

매년 상승률 목실	— 9.5%	— 8.3%	— 3.8%	— 0.6%	2.0%~3.0% 1.7%	3.0% 19.5%	5.0% 8.4%	7.5% -0.9%
매년 추진액 (백만원)								
목실	-54.1 -84.0	-53.5 -85.3	-84.5 -59.5	-10.9 -117.8	-137.1 120.8	349.0 -426.0	-12.8 982.5	6,810.0

주: *제 6차 4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완성

**6년 경제건설 계획

자료출처: 1.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자유중국의 공업” 65卷 第一期, (1986년 1월), pp. 13~30.

2. 于宗光, “臺灣경제발전과정중의 국민영기업관계”

자유중국의 공업, 64卷 第9期, 1985. 10, p. 13.

하는 한편 限額발행제도를 병행하여 국민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새로이 하였다. 안정과 복구사업이 효과를 거두자 악성통화팽창도 경감되는 추세에 이르러 정부는 1953년부터 4개년 경제건설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表 2).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실시함으로써 경제의 자력적인 지속성장을 달성하려는데 있었다. 당연히 발전은 농업부문부터 시작하나 점진적으로 농·공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 또한 계획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1949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생산기술의 개진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하였다. 농업의 발전은 1946年의 감세정책, 公地放領 등으로 경자유전이 이루어져 1950年代 경제정책의 중심점과 지도방향이 되었다. 농민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농지의 개선과 증산등의 기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리하여 농업생산력과 농민소득 및 일반적 소득분배등 모두 현저한 증진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농업증산의 성과는 국내수요의 충족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외에 그 잔여분은 수출을 함으로써 의화회득과 국내수요가 있는 원료와 설비의 구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同기간 공업의 발전은 자금의 수요가 적으면서 기술수준이 높지 않으며 공장건설기간이 짧고 자본의 회수가 비교적 빠르며 노동집약적인 民生경공업 위주로 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의화절약과 풍족한 물자를 공급하여 물가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취업기회의 확대를 모색하였는데, 방직, 합판, 시멘트, 유리와 합성수지공업등이 이 시기에 발전의 기초를 정립하였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협소로 인해 수입대체로서 발전을 모색한 공업은 곧 시장포화의 제한에 부딪치게 된다.¹⁰⁾ 이리하여 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내시장에서 국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대외수출지향정책이 1950年代末期에 새로운 정책으로 대두하게 되는데, 환율의 단일화,

10) 趙耀東, “我國台灣地區經濟發展의 歷程과 展望”, 1985.7.23 國家建設研究會 연설문, 今日經濟月刊, 第217期(1985.9), pp. 5~15.

新대만貨의 평가절하와 19개財經개혁의 실시 및 투자장려조례등은 모두 1951년부터 60년까지 반포·실시한 중요정책이다.

1960年代는 내외경제환경이 모두 안정되고 순조롭게 발전하는 시기로서 국내물가의 안정에 세계경제의 신속한 발전이 병행되어 국외지향수출 공업의 발전이 가속화하여 점점 국제시장의 개척이 이루어져 早期수확된 쌀과 사탕등이 대외수출품의 中心품목이 되었으며 전체경제 또한 고도수출의 상황下에서 신속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소위 경제발전의 기적은 이 단계로서 시작된다. 공업區, 가공수출區등 계획에 의해 설립된 생산단지는 더욱 기술이전과 대외무역의 증진이 이루어져 경제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본이 비교적 많이 들고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가공공정이 비교적 많은 냉장고, 세탁기, T.V 및 자동차부품공업등 내구소비재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바 이 시기는 경공업형 내구소비재공업 팽창발전의 명확한 예증이 된다.¹¹⁾

1970年代에 이르러 발전의 주축을 중화학공업으로 전향하였다. 당시 점점 국내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기술수준 또한 부단히 改進되는 동시에 각종 경공업 및 내구소비재공업에 필요한 중간원료 및 부품의 수량의 공급이 원활하여 국내의 경제규모에 부합되는 석유화학 및 철강등의 원료공업의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공업의 발전과 전자, 전자기계 및 기계공업 같은 기술집약공업의 진일보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밖에 기본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운수 및 전력공급부족과 기술勞工의 결핍으로 조성된 工資와 生産원가의 상승등은 신구세대교체현상을 촉진하는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었다. 10항 건설항목중 교통장애와 전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항목이 7항을 점유하였으며 철강공장, 대규모 조선소 및 석유화학공업등 3항목의 일괄작업 또한 산업구조의 중공업 전향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2항 건설사

11) 李達海, '我國經濟建設實況', 1985.8.6 해외유학생 문제 研究討論會 연설문, 今日經濟月刊, 第217期, (1985.9), pp.16~28.

업은 포괄하는 범위가 더욱 넓어 국민생활중의 「量」의 증가와 「質」의 상승 모두에 대해 당연한 重視를 제공하였다.¹²⁾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1950年代와 60年代의 경제전설은 국민생활수준의 개선과 국가의 세력증강에 그 기본목표가 있었다. 1970年代 이후에는 자주적 경제체제의 건립에 중점이 두어졌던바 구체적으로 上述한 국민생활수준의 개선목표가 변하지 않는 이외에 확고한 경제기반의 확립 및 대외의존도의 감소, 국제경제와의 연계강화, 그리고 실질외교의 전개등을 포함하고 있다.¹³⁾

Ⅲ. 經濟發展의 評價

이미 고인이 된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顧志耐는 경제발전연구와 국민소득계산법의 수립으로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논할때 아래의 10가지의 「현대경제성장기원」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즉¹⁴⁾ ; 1. 국민총생산의 지속적이고 부단한 증가, 2. 생산인소의 효율제고, 3. 산업구조의 변화(농업이 점유하고 있는 국민총생산의 비례감소), 4. 취업인구 구조의 변화(농업고용 인구의 비례감소), 5. 노동력의 유동성 증대, 6. 국민소득중 고용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제고, 7. 소득분배 평균정도의 제고, 8. 자본형성의 증가, 9. 국외자본의 이용증가, 10. 대외무역의 확대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검토해보면(表 3), 조금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나라는 모두 그것을 구비하였다. 다시 말해서 발전과정상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유일한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기타 개발도상국의 3

12) 註 10과 같음.

13) 經濟建設概況, 臺灣省政府新聞處簡印, 臺灣經濟發展의 經驗과 模式, 臺灣光復四十年專輯 經濟建設篇下篇, (1985. 10. 25.), pp. 231~239.

14) 侯絕明, 殷乃平, “孫中山先生과 臺灣의 經濟發展”, 孫中山先生과 近代中國學術 討論集 第四冊, (1985. 11.) p. 390.

〈表 3〉 臺灣經濟發展의 特徵 1953~1984

項 目	1953~1961	1961~1971	1971~1981	1981~1984
1. GNP 성장률	7.5	9.9	9.2	6.8
2. 1人當 GNP 성장률	4.0	7.1	7.3	5.2
3. 인구성장률	3.6	3.0	1.9	1.7
4. 불가상승률				
1) 소비자 물가지수	9.6	3.3	11.6	5.4
2) 도매물가지수	8.3	1.8	10.4	1.7
3) GNP 평균 감소 지수	6.7	3.7	10.4	4.7
5. 실업률				
1) 광의의 실업률	5.9	4.6	2.7	3.0*
2) 협의의 실업률	3.1	2.5	1.6	2.1*
6. 기초공업에 있어서의 취업인구 점유율	52.3	44.0	27.3	18.5
7. 소득분배 : 기니시 지수율	—	0.372	0.311	0.311*
8. 실질수출 성장률	23.0	23.3	16.2	11.6
9. GNP 에 대한 수출잉여의 점유율	—	1.1 ²	1.3	5.2*
10. GNP에 대한 경상수지흑자 점유율	—	1.3 ²	1.3	5.0*
11. GNP에 대한 국제수지의 점유율	—	1.3 ²	3.4	7.3*
12. GNP에 대한 대외무역의 점유율	26.6	45.6	92.6	102.5*
13. 부채비율	—	—	3.8 ³	4.3*
14. 환율(신대만貨 \$ = U.S.\$ 1)	28.67	40.00	37.83	38.90
15. GNP에 있어서의 저축의 점유율	10.1	21.9	32.1	31.70
16. GNP에 있어서의 투자의 점유율	16.6	22.4	30.7	24.6
17. 국내투자에 대한 직접 국외투자의 점유율	1.3	7.3	4.8	3.5
18. GNP에 있어서의 조세수입 점유율	12.5**	15.2	18.6	18.3
19. GNP에 대한 정부수입 점유율	21.1***	23.7	24.4	26.3
20. GNP에 대한 정부지출 점유율	12.9**	23.7	24.4	26.3
21. GNP에 대한 미상환채권액 점유율	0.2**	3.1	2.0	2.1
22. 제조업의 실질 임금 증가율				
사 부 직	3.1***	1.3 ⁴	5.6	6.9*
노 동 자	3.6	111.9	9.7	33.3*

주 * 1981~83

** 1959제외

*** 사무직과 노동자 평균

¹ 1964~71² 1974~81³ 1974~81⁴ 1969~71

자료없음

자료출처 1. Shirley W. Y. Kuo, "The Taiwan Economy in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Prospects for the Economy of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1980's" National Central University, Chung-li, Taiwan, R.O.C. (June 17~18, 1985), p. 3.

2.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CEPD, June, 1985.

분의 1이라는 적은 시간으로 이 과정을 완성했다는 것이다.¹⁵⁾ 1952年에서 79年까지의 1人當 평균 국내 GDP 성장율은 6.3%이며, 1953年에서 83年까지의 경제성장율은 8.7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심지어는 전 세계의 극도불황기인 1980年에서 1982年까지의 3년동안에도 국민 1人당 국민총생산(GNP)성장율이 3.2%를 유지하였다. 발전연결도로 말하자면 1960年代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서로 비견되는 나라가 없었으며 1960年代 이후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우리와 같은 수준의 국가와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등과 일부 석유수출국을 우리와 함께 병렬할 수 있다.¹⁶⁾

만약 발전과정중에서 획득한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회고해 본다면(表 4), 급속한 경제의 성장과 동시에 물가의 안정 및 높은 취업율, 그리고 산업구조의 점진적 개선등 어느것 하나 빼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런 문제는 바로 도대체 중화민국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는가?¹⁷⁾ 하는 것인데 이 문제의 다른 물음법은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세계 1,2위를 다툴정도로 인구밀도가 높으며, 여러번의 외교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국방비의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30년밖에 안되는 단기간에 낙후에서 현대화로, 빈곤에서 부유로 전환하였으며, 또 그 기본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本國과 국외학자들이 항상 떠올리는 중화민국 경제발전의 성공은 사실상 「많은 성공의 요인중에서 경제계획의 성공적 실행이 의심할 여지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¹⁸⁾라는 것인데 이러한 說明은 현재의 문헌가운데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같이 모두가 긍정하는 설명은¹⁹⁾ 중화민국이 1950年代에서 60年代

15) 侯絕明, “臺灣經濟成長의 回顧와 前瞻”, 「中國時報」 14版, 1983. 10. 25.

16) 註 15와 같음.

17) Wu, Yuon-li, “Becoming an Industrialized Nation, R.O.C's Development on Taiwan”, Praeger Special Studies, (1985), p. 1.

18) 註 7 참고.

19) H. Myint, “Comparative Analysis of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with Other Contries”,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Experience and

에 걸쳐, 실행은 3 종류의 서로 다른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3 가지 정책은 첫째, 화폐와 재정정책으로 통화팽창을 억제하여 저축과 자본형성을 조성하였으며 동시에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유도실행한 것이며, 둘째, 농업정책은 기술의 창조와 제도의 개선을 촉진하여 미국의 원조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생산효과를 발휘하게 하였다. 셋째는 수출의 장려와 수입의 자유화를 촉진하였고 단일환을 또한 신대만화의 환율을 더욱 인하시켰다. H. Myint 같은 경제발전 연구학자는 말하기를;

“대만의 경제성과는 소위 비교이익원리의 운용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성공의 예가 된다. 그것은 조직적 방법을 운용하여 농업발전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충분한 노동력을 앞세워 거둔 결과이다.”

‘〈表 4〉의 설명으로 평가의 자료를 삼을 수 있겠다.

郭婉容교수는 “대만경제의 변환”에 있어서라는 책에서 1950年代와 60年代의 국내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도모한 각종의 内外요인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데;

- (1) 저렴한 에너지
- (2) 세계경제의 빠른 확장
- (3) 양호한 국제금융 체제
- (4) 저렴한 공업자본과 풍부한 노동력
- (5) 신속한 기술의 진보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198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텍사스대학의 L.R.Klein 교수는 「질」과 「양」의 양방면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한 커다란 요인을 제시하는데²⁰⁾ 이는;

(一) 양적 요인

- (1) 농지 개혁

Lesson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The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R.O.C. (Dec. 10~20, 1981), pp. 107~108.

20) 註 19 와 같음

(表 4) 各 發展段階의 主要成果와 問題

시 기	50 년대		60 년대	
주요성과	1. 실질 GNP 2. 1인당 GNP 3. 도매물가지수 4. 소비자물가지수 5. 농업생산비율 ¹ 공업생산비율 ² 6. 국내총자본형성비율	7.3% 3.8% 8.8% 9.7% 31.2% 25.4% 12.4%	1. 실질 GNP 2. 1인당 GNP 3. 도매물가지수 4. 소비자물가지수 5. 농업생산비율 ¹ 공업생산비율 ² 6. 실업문제 해결 7. 개인기업과 가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내총 자본형성비율 8. 공업이 경제구조의 주 체로 등장	9.9% 7.1% 2.0% 3.4% 17.3% 35.2% 60.0%
문 제	1. 실업 2. 농업구조 위주 3.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국내 총 자본형성 비율이 40%에 달함			
시 기	70 년대		80 년대	
주요성과	1. 실질 GNP 1971~1973 1978 1971~1980 2. 도매물가지수 3. 소비자물가지수 4. 무역잔고 5. 정부재정잔고 6. 개인기업과 가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내총 자본형성 비율 7. 서비스산업의 주요산 업화 8. 서비스업의 생산량에 대한 비율	 13.0% 13.9% 9.2% 8.2% 8.9% 50.2% 48.8%	1. 실질 GNP 1981 1982 1983 1984 1985 2. 1인당 GNP 의 3000 불들과 3. 1984년 도매물가지수 4. 1984년 소비자물가지 수 5. 개인소비의 전체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율 6. 개인고정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율	 5.0% 3.9% 7.5% 10.9% 4.7% 0.5% -0.1% 3.6% 2.4%

	공업생산비율 농업생산비율	34.3% 9.1%	7. 개인부문의 흡수요인 더욱 증가
문 제	1. 실질 GNP의 1.1% 감소 2. 석유파동 3. 1974~75 적자기록		1. 1981~82년의 세계경제불황 2. 공공투자감소

주 1. 다른 설명을 제외하면 분포의 성장율이 매년 평균성장율을 표시한다.

2. 1960년의 숫자
3. 1970년의 숫자
4. 1980년의 숫자

자료출처: 臺灣 경제발전의 경험과 模式・臺灣省政府新聞處編印 光復四十年專輯, 經濟建設編, (1985. 10), pp. 234~5.

- (2) 높은 저축율과 높은 투자율
- (3) 강력한 대외수출지향형 성장
- (4) 통화팽창의 억제정책 등이며

(二) 질적 요인 으로는

- (1) 근면하고 성취욕 있는 작업욕구
- (2) 양호한 교육성과
- (3) 근검, 절약의 미덕
- (4) 인구에 대한 절제
- (5) 均富의 개념 등이다.

비록 전술한 두교수 모두가 전체 경제발전과정中的 정부의 중요성과 공헌을 인정하였으나 그들은 정부계획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소위 「계획적 자유경제제도」가 시장기능을 약화 시키는가 아닌가에 대해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논쟁과 서로간에 다른 견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바 한 마디로 단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本國 경제발전의 주요 설계자의 하나인 行政院 정부위원인 李國鼎선생은 그의 논문에서 자기가 참여하고 설계한 경제건설계획을 벌론하였는데²¹⁾ 그는 아래와 같이 말

21) L.R. Klein, "Economic Strategies for Taiwan in the Remainder of this

하였다.²²⁾

“대만공업의 신속한 발전과 공업구조의 점진적개선의 저변에는 많은 공헌요소가 있으나 정부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I. Little²³⁾의 견해 역시 매우 타당한데 그는 대만의 기적은 자유기업체제와 정부경제정책의 커다란 영향력 아래 탄생된 결과이다

그러나 1970年代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커다란 변화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本國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에너지, 무역, 금융, 인력과 기술등 모두가 불리한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²⁴⁾ 油價, 공급불안정, 발전정체 및 세계불경기 등은 갑자기 유행하는 어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만과 같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경제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는 소형개방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정책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실상 정부는 과거 이 기간 이래 확실히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각 발전단계 혹은 전환의 과정중에 경제계획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문제의 증점은 바로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부가 발전과정중 약간의 관여만 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날 발전의 영역과 기업의 성숙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혹시 더 좋지 않았을까?²⁵⁾ 하는 것이다.

Century”,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Prospects for the Economy of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1980's”, National Central Univ, Chung-li, Taiwan, R.O.C., (June 17~18, 1985), p. 1.

22) K. T. Li, “The Experience of Dynamic Economic Growth on Taiwan”, (Mei-Ya Publications. Inc., Taipei, Taiwan, R.O.C., 1976), p. 168.

23) 註 13과 같음.

24) Shirley W. Y. Kuo, “The Taiwan Economy in Transition”, (Westview Press, 1983), Chap. 15.

25) 邢恭寶 “臺灣經濟發展政策의 回顧와 沉思”, 中國時報 2版, 1986. 8. 21~23. 費學漢 “我國當前全盤發展策略의 構想”, 中央日報 2版, 1983. 8. 31~9. 5.

학자들은 정부의 간섭을 둘러싼 지지 혹은 반대에 대한 변론을 아직 끝내지 않고 있으며 유명한 王作榮과 蔣碩傑의 論戰은 경제학자들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논쟁의 시초로써 새로운 章을 열었다. 그들 논쟁의 주요표적은 곧 정부가 管制利率을 결정하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에 있었던바, 두 사람의 논쟁은 '화폐학파'와 '케인즈학파' 추종자들간에 상호 대결을 유발시켰는데 이는 이 양파의 기본차이점이 정부가 발전과정중에 어떻게 위치를 수립하는가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연구원의 院士(연구원) 邢慕寰先生 역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로써 정부의 기업보호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대표하는데 아마도 연구와 자료가 점점 많아진후에 사실의 진상은 대중에 의해서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이 '고독한 학문'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소위 3명의 학자간에 4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나는 등, 만약 경제학자들간에 일치된 노력이 없다면 아마도 헛된 고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중화민국은 1950年代 초기에²⁶⁾ 당시 유행하던 「구조학파」의 영향을 받아 수입대체·저이율·高환율등의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시장기능을 무시한 정책으로는 경제계획상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효과를 얻기가 어려웠던 바, 이에 정부는 과감히 이러한 책략을 버리고 新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D.H. Robertson의 경제성장 유발이론을 이용하여 —국제무역, 대외시장의 확장— 비로소 전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계기로 삼았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교육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요인의 체질을 개선하여 나날이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 혹은 자유기업의 역할은 경제체제의 운영상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수입제한, 외환관리, 융통성이 부족한 이율수준, 농산품의 보증수매가격

26) 註 14와 같음.

및 많은 다른 종류의 보호색채등은 조리있고 왕성하게 강조하는 경제발전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것 또한 우리가 과거의 반성을 통한 경제건설 성과의 평가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IV. 經濟發展의 보이지 않는 意義

과거 30 여년간 대만이 이룩한 절출한 경제건설의 성과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대체 어떠한 계시가 있었으며 경제건설상 나타난 의의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本章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많은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만의 과거 발전경험을 제 3 세계국가의 경제발전 모델을 삼고 있으며 일반 개발도상국과 그 지역 역시 그들 발전의 동기으로써 중화민국 성공이 주는 암시를 찬양해 마지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만은 직접 간접의 수단을 통해 발전의 경험을 비교적 개발상태가 낮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조건이 대만과 별차이가 없다면 대만이 실행한 개발정책과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總統家의 金선생은 대만경제발전의 성공이유와 기타지역에 대한 지원의 소재를 7 개 항목으로서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²⁷⁾ 즉; (1) 정확한 지도원칙 (2) 강력한 영도 (3) 안정된 사회 (4) 교육의 보급 (5) 국민의 성실 근면한 노력 (6) 탄력성있는 경제정책 (7) 자유경제의 환경등인데 이것은 아마도 발전을 원하는 국가에게 가장 좋은 지도 지침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학자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점은 대만경제 성장의 신속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른 성장과정중에 어떻게 물가의 안정과 충분한 취업기회의 제공을 달성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같이 平衡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룩한 예는 근래의 발전관계 서적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대만과 같이 아시아의 4 마리 호랑이로 불리어 지는 한국

27) 註 7 과 같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대만과 비교해 약간 떨어지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 말하자면 이러한 성과의 이룩은 필자의 견해로는 국부 손중산선생이 제창한 삼민주의 민생경제의 최고 지도이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²⁸⁾ 이것은 바로 前총통이 강조한 정확한 지도이념인 것이다. 손중산선생의 경제철학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는 자유기업 경제체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자본주의 제도아래서 자생하는 병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주장은 일종의 管制자본주의, 비순수자본주의가 되었다. 자유기업제도 필수인 구비조건은 생산공구와 소비재의 私有, 소비자 주권 및 시장경쟁을 포함하는데 손중산 선생이 말한 「정부의 적당한 管制를 받는 시장경제제도」의 구조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것들이다. 「均富」의 목표아래 손중산선생은 독점과 착취를 반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공평한 경제의 달성을 위해 민생주의에서 강력한 정부간섭정책을 실시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생산력의 대소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진행된 소득분배는 과거 발전과정에 있어 경제학자들조차도 믿지 않으려하는 기적을 이룩한 것이 그 사실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급속성장과 경제안정 모두를 중요시 한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의 경험중 가장 가치있는 것은 道와 他人을 위하는 것을 이룩한 것이라고 칭할 수 있다. 대만은 경제안정의 대가로서 과도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성장에 우선하나 장기적으로 볼때 성장은 필수불가결하므로 성장과 안정이 장단기 목표를 경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문의 균형발전이 전일보한 발전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발전초기부터 농공업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만은 부문간 발전의 불균형이 야기시키는 정치와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즉 일반적인 안정발전을 추구하고 특수한 발전계획은 자제함으로써 자원의 특성을 살려 발전의 속

28) 侯家駒, “臺灣經濟發展階段—民生史觀經濟發展階段論의 實施” 孫中山先生과 近代中國學術 討論集 第四冊 pp. 421~440, 附註(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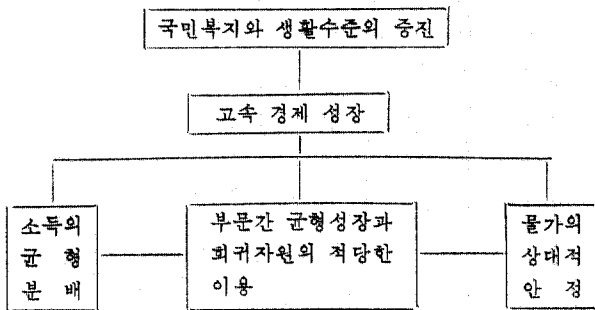
도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었던바 이는 기타 개발도상국에 격려와 교훈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밀도 있는 안정사업을 경시하고 대규모의 건설사업 추진들은 개발도상국가가 왕왕 쉽게 저지될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이다.²⁹⁾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도표를 이용해서 설명해보기로 하겠다(圖 1 참조).

〈圖 1〉

목표

정책



위 도표에서 우리는 경제건설의 최종목표가 국민 복지와 생활수준의 증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속성장은 바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할 길이다. 부문간의 균형발전, 물가의 상대적안정과 소득의 균형분배라는 기초위에 고속성장이 바르게 전립되면 그 성과는 오래도록 국민이 모두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중화민국 발전의 경험은 이러한 성장구조의 이론적과 실질적의 우월성을 긍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대만이 날이 갈수록 균형을 이루는 소득분배에 대해 항상 힘써 모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이 조세정책 및 기타 방법, 즉 강제이전의 형태로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인데, 이는 신흥개발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사실상, 대만은 1970年代

29) 于宗先, “經濟發展策略淺說”, 「海外中心簡訊」, 八版 行政院青輔會出版, 1986.

에 이미 세계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균형을 이룬 국가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노동집약적 밀집산업으로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농업부문 노동력을 소득이 높은 공업부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임금층의 임금증가율을 고소득층의 임금증가율보다 높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노공계급의 보편적 참여와 공업발전이 매우 큰 관계가 있다. 당연히 정부의 대량의 교육투자는 노동력의 수준을 제고하여 생산력의 증가를 이룩한 것 또한 이러한 과정중에 일체의 공헌을 발휘하였다. 소위 「적은 것은 무섭지 않으나 불균형은 무섭다」라는 교훈은 중국전통사회의 독특한 정치예술을 대표할 뿐 아니라 발전경험에 대한 반포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깊은 뜻이 있다.

최근의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 개발도상국 경제전설의 성과로서 有關 발전이론을 예증하고 있는데³⁰⁾ 바로 W.W. Rostow의 「경제발전 단계설」이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다. 대만의 상황으로 살펴보자면, 1959年이전을 Rostow의 발전 6단계설중 제 2단계로 볼 수 있는데 즉 ‘도약전’의 상태이며, 1960年代에 이르러 대만의 경제는 도약기에 접어들며, 1970年代에는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어 현재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Rostow의 「대량소비단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대만은 이미 소위 「품질추구」의 제 6단계에 접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반 민중의 요구하는 생태환경, 소비자 권익 및 오염제거운동 등의 활동이 날로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것 등이 맥락을 같이하는 것들이다. 대만의 경제발전이 암시하는 또 다른 의의는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발전으로써 오늘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경제발전의 우세요인을 적시에 이용하고, 스스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처음부터 하나 하나 쌓아 이룩한 결과이다.

30) Kuo, Tai-Chun, "An Analysis of the Taiwan Experience; Policies and Social Factors," *Issues & Studies*, Vol. 21, No. 1, (Jan 1985),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Cheng Chi Univ. pp. 99~112.

반대로 중공을 살펴보면, 그들의 자칭 건국 이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하여 군사와 관계 있는 중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중·경공업은 불균형을 이루었고 민생의 기본이 되는 경공업을 경시하여 민중의 빈곤과 재정이 극에 달하여 발전의 기초를 박약하게 하였으며 경제구조의 혼란을 조성하여 결국 발전이 침체되는 심각한 곤경에 빠졌다. 대만과의 수준차를 보면 1949~50년의 백중지세에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10여배의 거리로 벌어졌다. 대만은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하여서 서로 다른 이념의 제도아래서의 서로 다른 효과를 거둔 것 외에 기타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선하고 활력있는 보기를 보여주었다. 중공은 과거 30여년간 敎條의 속박과 급속한 개혁의 추진, 본말전도의 정책등으로 부득불 그 실패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말 시작된 경제개혁의 실시는 대만경제발전에 대한 자극을 받은 것인데 만약 양국간에 대비가 그토록 선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中共이 「對內경제의 활성화와 대외 개방」의 보조를 이토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만경제발전의 경험이 전체중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인데 자원과 인력이 풍부한 중공이 만약 정확한 발전계획과 지도아래서 발전을 추구한다면 빈곤의 타파는 물론이고 선진개발도상국으로 부상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화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世人들에게 모범된 예로 간주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날 중공이 대만모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대만이 노력하여 거둔 성과이다.

V. 經濟發展의 展望

1976年代를 전후하여 세계는 2차례의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경제 불황기를 맞이하였는바 대만과 같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아 1974년의 경제성장율은 1.1%를 기록하여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국제정세로 말하자면 유가의 폭

등, 통화의 팽창, 저 수요, 떨어지지 않는 실업율, 예산적자, 보호주의의 팽창, 높은 이자율, 국제금융 질서의 혼란 및 각 신흥국의 격렬한 경쟁등, 모두가 1970 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현실이다. 국내적 방향에서 보자면 노동력이 넘쳐흐르던 단계는 이미 멀어진지 오래이며 기술이 그다지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도 이미 거의 취업이 되었으며 게다가 빠른 임금의 상승, 기술진보의 완만, 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의 어려움등 외부 환경이 조성한 압력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내외의 급변 정세 아래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중 특히 산업구조와 대외무역의 철저한 개선은識者들의 일치된 견해가 되었다. 대외무역을 약간 분석해 본다면 아래의 몇몇 뚜렷한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³¹⁾

첫째, 수출공급이 가능한 제조품은 여전히 경공업 소비재에 집중해 있는데 이러한 노동집약적이며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은 가장 경쟁과 물량제한 규제를 받기가 쉬우며, 둘째, 역대로 낮은 노동임금에 의지하던 산업은 점점 임금상승과 생산력의 저하가 겹쳐 폭등하는 수출가격과 과대평가되는 新대만貨의 평형이 이루어져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자본재 수입의 증가는 공업구조의 개선노력을 어렵게 했으며, 넷째, 수출입 대상지역이 여전히 몇몇, 특히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1983 年の 경우를 보면 수출액의 80.4%가 10 大 교역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 美日양국이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 大 수입상대국과의 수입액이 80.6%를 차지하는 가운데 美日양국이 5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984 년에 이르러 美日양국이 점유하고 있는 수출입의 비중이 59.3%와 55.2%로 상승하였으며, 다섯째, 對美무역 이익과 對日무역 역조가 갈 수록 심각해져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쌍방간의 정치 경제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끼쳐 대만의 산업

31) 蕭萬長, “我國國際貿易의 現況과 展望”, 救國團 주최 國際事務研習會 연설문 1986. 2.

과 무역구조에 심각한 부작용의 파급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판매路的의 약화 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시켜 대외무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무역업자의 해외시장에 대한 물이해로 판매촉진이 어려워 대부분의 교역이 외국상사의 주재하에 행해졌으며 대만 무역상의 수출촉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는 아주 적었었다. 그러나 수출무역의 확대는 수출무역商의 큰 증가를 가져와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거의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무역질서 또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산업구조 방면에서 말하자면 아래와 같은 현안문제를 포괄하고 있다.³²⁾

1. 농·공산품이 점유하고 있는 국민총생산(GNP)의 비율은 1953년에서 84년까지의 기간동안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으며 농산품이 GNP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1953년의 38.3%에서 1984년에는 7.38%로 떨어졌으나 같은 기간의 GNP에 대한 공산품의 점유비율은 17.6%에서 49.38%로 증가하였다. 비록 이와 같으나 각종 생산품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많은 산업이 피보호의 상태에서 독점경쟁을 하게 되어 연구와 발전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개발보다는 모방에 치중하게 되어 기술개발이 어렵게 되었으며, 2. 민간부문의 투자욕구 또한 약화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높은 위험성, 상품주기의 단명,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외에 미래에 대한 고려가 상당한 작용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품의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새로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게 되었다.

기타방면으로는 비교적 심각한 현상으로 5개항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1.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GNP)과 저축율(총저축/GNP)의 차이가 1984년에 이미 12.6%에 도달하여 심각한 투자부족 현상을 야기시켰으며, 2. 외환보유고가 이백억불을 초과함으로써 물가의 형성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3. 전통의 생산지향적 양식을 시장 또는 판매지향적 양식으로 전향하지 않으므로써 관리기술과 운영정책이 낙후되었으

32) 註 10, 11과 같음.

며, 4. 현존하는 경제법규 및 금융제도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리하지 않아서 경제범죄와 탈세현상 및 사기범죄등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으며, 5.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운동이 사회경제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은 다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1985년 5월에 「經濟革新委員會」가 성립되었는데, 그 기본임무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다. 이 위원회는 학자, 업자 및 정부관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철저히 해결해 줄 것을 일반 민중은 각별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아니며 경제개혁은 반드시 사회·정치개혁의 처방과 배합되어야 하는바 이 위원회는 반 년 동안 약 50여항의 건의안을 제출하여 행정부문의 집행과 관철을 거둔 효과가 있었다. 「경제혁신 위원회」는 우리에게 정책설정의 정확한 방식의 수립과 자문의 과정을 알려 주고 있다.

經革會의에도 많은 유관 정책이 이미 앞을 다투어 실시되었다. 수출입 시장과 공급지의 확대, 중동 산유국과의 대등무역의 전개, 中美자유무역 지구 설치구상의 추진 및 수출상품의 품질개선, 대외 무역업의 새로운 구상, 그리고 더 많은 전문무역업자의 배양훈련등 모두가 전술한 무역문제의 해결은 위한 구체적 표현이다. 산업구조 방면을 살펴보면 시장기능을 더욱 중시하고 무역업무에 있어 일반화와 보편화의 원칙을 결합하여 보호 산업의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자와 업계가 정책공업을 새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민영기업의 설비개선과 관리기술의 개선 및 공영기업의 효율제고에 따른 공영사업의 감축등에 이르게 하는 것 등 모두가 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술한 이러한 시책과 실행은 성질상 모두 단기문제의 해결방법에 불과하다. 장기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공업화와 현대화등의 실행이 필수적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경제발전정책의 자유화 및 국제화와 제도화가 비로소 장기성 정책의 귀결점이 되는 것이다. 더 확대

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유화의 의의³³⁾, 바로 정부의 민간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의 감소를 말하는데 정부의 개인과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유형무형의 각종 속박과 제한을 철저히 경감시킴으로써 개인과 업자로 하여금 이윤동기의 유도아래 투자와 취업기회의 선택을 자유롭게하여 민간기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한다면 전체사회의 산출 또한 제고되어 이윤의 동기가 계속이어진다면 경제의 활력 또한 계속될 것이며 유한자원의 이용도 경제효율의 제고와 상

〈表 5〉 中期(1986~1989)와 10개년(1980~1989)발전계획

	제 9 차 경제건설계획	10개년 발전계획
	1986~1989	1980~1989
목표	1. 14개항의 중점실시추진계획 및 기타 공공투자 확대	1. 에너지사용의 효율제고
	2. 개인투자의 확대와 국내경제의 안정성장 지속	2. 공업구조의 개선
	3. 무역자유화 촉진	3. 행정효율의 개선과 대외무역 증진
	4. 금융관리의 강화	4. 산업과 수출증가의 연계강화
표	5. 금융제도의 합리화	5. 인력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충분한 취업기회의 보장촉진
	6. 경제구조개선	
	7. 인력의 과학 및 기술발전도모 및 에너지자원의 계획적관리의 강화	
	8. 국민복리의 증진	
	매년경제성장률 6.5%	7.7%
	목표매년도매물가지수 2.5%	6.0%
	매년무역잔고(백만\$) 6,440.0	*

주: * 자료없음

자료출처: 1. 경제건설위원회 “제 9 차 4개년 경제계획(1986~1989) —목표와 기본정책—” 「자유중국의 공업」 (1986. 1), pp. 13~20

2. 李國鼎 및 葉萬安, “중화민국의 경제계획”, “대만경제발전의 經驗 및 교훈”, 회의논문, 1981. 12. 中央研究所 經濟研究所, pp. 169~195.

33) 吳中立, “經濟政策의 經濟—經濟自由化, 國際化와 制度化”, 「中央月刊」第17卷 第四期, (1985年 2月), pp. 59~62.

〈表 6〉 主要經濟指標

項 目	單 位	1984年	2000年 (목표)
총 인 구 (年中)	1,000人	18,887	22,685
인력수준(15세 이상으로서 중학교 육 이상 이수자의 인구에 대한 비 율)	%	37.6	79.9
G N P	1984년가계, 十億, 新대만貨	2,291	6,224
1人當 G N P	當期가계, 新대만貨	121,467	590,305
재화 및 노동수출	" 十億, 新대만貨	1,319.3	6,467.3
재화 및 노동수입	" "	1,039.4	6,392.1
재 화 수 출	" "	1,205	5,723
재 화 수 입	" "	871	5,625
농산물 자급정도(국내 농산물의 공 급의 총 공급에 대한 점유율)	%	79.8	83.5
GNP에 대한 복리지를 점유율	"	6.1	8.3
被 사회보험(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인구에 대한 비율	"	24.8	100
每 人 생 활 공 간	m ²	17.9	25.0
每萬人當 病床수		31.0	40
" 의사수		8.0	10
每百人當 전화수		27.7	49.5
" 자동차수		6.4	20
개인 비 상업 전력 소비	kWH/月	53.0	118.3
每人 평균 GNP	美 \$	3,067	15,136

자료출처 : T.K. Tsui and C.C. Chao, "Perspectives of the Taiwan Economy up to the year 2000,"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Prospects for the Economy of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1980s" National Central University, Chung-li, Taiwan, R.O.C. (June, 17~18, 1985), p. 51.

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의 양호한 순환은 경제활동의 극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의 체제가 자유화의 원리 위에 건립되어 있는 관제로 경제활동의 공간이 국내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고려한다면 활동의 공간을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각종 생산요소를 국제간에 원활하게 유통시켜, 즉 비교이익원칙의 인도아래 각종 자원의 생산력을 최상의 조건에서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부수되는 복지는 전체사회와 국가의 이상과 일치할 것이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더욱 더 발전하려한다면 국제화정책의 에는 아마도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화와 국제화의 추진은 일 개인의 선호도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바 전체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제도화의 중요성은 마치 도시의 교통표지와 같아서 서로의 약속과 존중이 계속 조정 유지됨으로써 그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제활동은 순환의 법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바로 私利의 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他人의 손해를 전제로 하여서는 안되며 더우기 私利와 공익의 상충은 피해야 할 것이다.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인 趙耀東 선생은 경기규칙준중의 예를 들어 제도화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국제간에는 국제간의 규칙이 있고 국내에는 또 국내대로의 법칙이 있는바 정부의 책임은 바로 이러한 규칙을 국민이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만의 경제를 평함에 있어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과장된 감은 있으나 대만 경제가 현재 곤란한 지경에 타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³⁴⁾ 국제화와 제도화는 오늘날 절실한 처방전이며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가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는 대만국민에 대해 말하자면 이러한 중요한 개혁은 일종의 고된 훈련으로써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표현이 바로 현재의 정책실행상황을 나타난 말로써, 외신상담의 노력으로 당면해 있는 각종의 충격에 적극 대처한다면 대만 경제성장의 기적을 재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전망한다면 중화민국 경제의 문제는 결국 20세기 이전에 과연 선진국가의 대열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개혁위원회가 내린 판단에 약간의 분석을 가해 볼 필요가 있다. 表 5는

34) 註 3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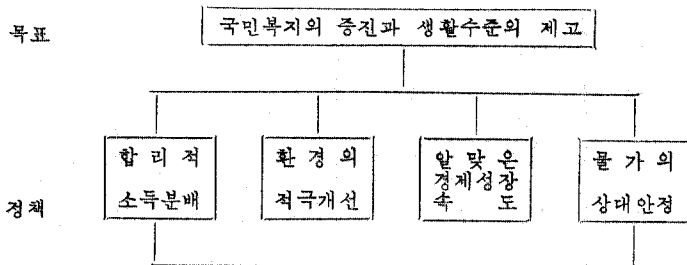
제 9기 4개년 경제개혁(1986~1989)과 10년후의 전망(1980~1989)의 비교이다. 이 도표에서 볼 때 금융질서, 투자부족, 산업현대화 및 무역자유화와 에너지과학등 대만 경제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경제문제의 해결이 계획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래발전의 효과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그 열쇠가 있는 것이다. 表 6은 서기 2천년의 미래전망과 1984년의 실제지수를 비교한 경제지표인데, 이 표에 있어 인구의 자연증가수가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지표는 1984년의 지수와 서로 비교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대만은 서기 2000년에는 반드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개인평균 국민총생산은 5배의 성장을 하게되며 인력의 수준(15세 이상으로 중학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자의 백분율)이 2배로 제고되며 모든 국민이 모두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며, 2인당 한 대의 전화와 5인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는등 선진국의 대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표와 관계 있는 지표로 약간의 계산을 해 본다면 우리는 흥미 있는 약간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의 대만 발전의 추세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몇몇 숫자로서 예를 들어 보자면 1984년의 대외무역의존도(총무역액/GNP)는 102.96%인데 서기 2000년의 예상 대외무역의존도는 206.62%에 달하게 되어 1984년의 2배이상 대외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잔액의 중요성(무역잔액/GNP)은 오히려 1984년의 12.2%에서 2천년에는 1.1%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대만은 더 이상 무역흑자의 수혜국이 아니며 서비스 부문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순 무역흑자는 1984년의 14.6%에서 2천년의 1.6%로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록 대만이 갈수록 대외무역에의 의존도가 늘어나지만 같은 폭의 수입증가로 말미암아 무역의 흑자는 지금과 같이 다른 국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단언할 수 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Crown 교수는 소득예측의 결과로써 (表 7) 대만과

이탈리아의 성과를 비교했는데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선진국인 미국과 이탈리아가 3%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대만과 한국의 성장율을 7%로 할 때에 대만은 곧 이탈리아를 초월하여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저 성장정책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서기 2천년에는 이탈리아와의 차이를 아주 좁힐 수 있어 이 또한 새로운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대만과 국외학자의 일치된 견해는 선진공업국이 계속 안정성장상태를 유지하고 국제경제의 급변이 있지 않는다면 대만은 세계경제의 확대발전을 따라서 서기 2천년에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表 8>과 <表 9>는 수요와 공급의 두개 방면으로 나누어 미래의 성장기초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장의 도표에서 필자는 성장의 동력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발견했다. 비록 경제건설위원회가 발행한 자료가 일종의 대원칙과 커다란 방향의 제시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도표로써³⁵⁾ 대만 장기발전의 목표와 정책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圖 2>



이 도표중 적어도 4가지 특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 1) 질적요소의 명확한 고려, 2) 평균적 소득분배의 합리적 분배로의 전환, 3) 내외환경

35) 註 29와 같음.

〈表 7〉 質實 國內總生産額 豫상평가

(1975년 기준, 단위 美\$)

I. 1人當 성장율	2%	
	1980	2000
美 國	8,089	12,020
이탈리아	4,661	6,850
II. 1人當 성장율	5%	
中華民國	2,522	6,691
大韓民國	2,007	5,325
III. 1人當 성장율	3%	
美 國	8,089	14,609
이탈리아	4,661	8,148
IV. 1人當 성장율	7%	
中華民國	2,522	9,760
大韓民國	2,007	7,767

자료출처; L.R. Klein, "Economic Strategies for Taiwan in the Remainder of this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Prospects for the Economy of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1980's," National Central University, Chung-li, Taiwan, R.O.C., (June 17~18, 1985) p. 14.

〈表 8〉 經濟成長의 기초(生産面)

年 度	1984	1985	1989	2000	1985~2000 (평균)	1986~1989 (평균)	1990~2000 (평균)
項 目							
실질 GDP 성장율(%)	10.3	8.2	6.5	6.3	6.5	6.5	6.3
농 업 (百分點)	0.1	0.1	0.08	0.05	0.07	0.09	0.06
공 업 (")	6.4	4.6	3.1	2.5	2.9	3.2	2.7
광 업	-0.02	0.01	0.01	0.01	0.01	0.01	0.01
제 조 업	5.9	4.0	2.6	2.1	2.5	2.7	2.3
전 축 업	0.1	0.3	0.3	0.2	0.2	0.3	0.2
전 력 및 기 타	0.4	0.3	0.2	0.2	0.2	0.2	0.2
공 공 사 업							
서비스업(百分點)	3.8	3.5	3.3	3.8	3.5	3.2	3.5
교 통 운 수 업	0.6	0.5	0.6	0.9	0.7	0.6	0.8
기 타 서 비 스 업	3.2	3.0	2.7	2.9	2.8	2.6	2.8

자료출처: 同表 3, p. 32.

〈表 9〉 經濟成長의 기초(需要面)

項 目	1984	1985	1989	2000	1985~2000 (평균)
실질 GNP 성장률 (%)	10.9	8.5	6.4	6.3	6.5
國外純要素 소득 (%)	0.6	0.4	0	0	0
국내 총 생산액 (%)	10.3	8.1	6.4	6.3	6.5
1. 국내 수요	6.1	9.7	6.3	6.8	6.7
(1) 개인 소비	4.1	4.2	3.5	3.7	6.7
(2) 정부 소비	1.1	1.0	1.0	1.1	3.6
(3) 총 고정부자	1.1	2.6	1.7	1.9	1.1
개인 부문	1.9	1.7	1.0	1.1	1.9
정 부	0	0.6	0.3	0.3	0.3
공영기업	-0.8	0.3	0.4	0.5	0.5
(4) 재 고 투 자	-0.2	1.9	0.1	0.1	0.1
2. 순수출	4.2	-1.6	0.1	-0.5	-0.2
財貨노동수출	10.6	5.7	3.5	2.8	3.3
財貨노동수입제의	6.4	7.3	3.4	3.3	3.5

자료출처 : 同〈表 6〉, p. 31.

의 변화에 따른 성장속도의 알맞은 수정, 4) 환경보호과제의 중요 정책화 등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대만은 21 세기에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Ⅵ. 結 論

중국인의 후에는 대만에서 하나의 발전모델을 창조하여 기타 개발도상국의 표본과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대만정부와 국민이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 바, 에머슨선생이 말한 '성공을 위해서는 일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과 꼭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위황한 성공에 자만한다면 절대로 더욱 훌륭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명

실상부한 현대적 국가를 이룩하려 한다면 반드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등 각 방면이 서로 협동하고 노력을 일치해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학안에 ‘만약 새롭게 하려한다면 日新하고 又日新하라’는 말이 있는바 부단한 日新, 又日新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적의 재현을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